

역사적 문화해석의 관점에서 본 상업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 한식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ing Expression of Commercial Buildings from the Point of a Historical and Cultural Analysis

- Focus on Korean Restaurants -

전성희* / Jun, Sung Hui

김진옥** / Jin Ok Kim

Abstract

Cultural analysis is closely related to 'Space' which we live in. This means that the shape of the space is not formed accidentally but is a cultural result from how we live. The approach through cultural analysis of space provides a good standard in order to understand people's values and lifestyles.

Today the purpose of sightseeing has changed from just visiting some famous places to experiencing unique culture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demand of the sightseers which makes you experience culture through tasting food has been increasing. Yet there are some Korean restaurants that don't show enough Korean culture accu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figural characteristics in Korean interior design with the method of cultural analysis and how they are expressed in the Korean restaurants. In addition, I'd like to suggest that Korean figural characteristics are not old fashioned but are modern things that have grate potential to be reinterpreted.

키워드 : 문화, 한국적, 조형, 한식당, 인테리어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무분별한 타문화의 유입은 하나의 국가가 가지는 문화의 고유성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관광의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각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려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식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 주는 데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화적 해석을 통해 한국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연구

해 보고,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되는 문화적 특징이 한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이 결코 옛것의 답습에 의한 진부한 것이 아닌 현시대의 정서나 경향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 하고자 함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문화 해석의 대상을 한식당이라는 상업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업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방향으로 디자인 될 수 있는 공간이자 변화의 속도가 빠른 편이고, 그 중에서도 한식당은 한국적 문화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해석의 유형을 제시하여, 문화의 진화 단계에 따른 한국적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해석 유형을 공간에 적용시켜 공간, 형태, 색채의 조형적 요소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다.

* 정희원, 경성대학교 석사과정

** 정희원, 경성대학교 교수

2. 이론적 고찰

2.1.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은 시대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1950년대에 문화 이론가 크뢰버(A.L.Kroeber)와 클루크혼(C.Kluckhohn)은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서로 상이한 관점에 따라 형성된 것임을 지적했는데, 이는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이 결코 확실하고 견고하게 묘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¹⁾ 이들은 문화의 정의를 분류하고 여러 가지 추상적 개념들을 연결하여, 크게 묘사적 정의에서부터 역사적, 규범적, 심리학적, 구조적, 발생학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의 주된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공간의 조형적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공간에서의 문화적 조형 요소

(1) 자연환경·사회문화환경의 영향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특정한 생활 방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환경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인간의 생활 행위이며 인간의 생리적, 물리적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 일정한 모습을 지닌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의한 차이는 주거문화의 형태나 색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끼쳐, 각기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 짓거나 혹은 유사 문화권으로 특성화 시킨다.

(2) 공간문화에서의 조형적 표현

공간에서의 조형적 요소는 문화의 영향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나 생활의 모습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

2.3. 문화 해석의 유형

문화를 변화와 적응단계로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면, 이질(또는 외래)문화와 충돌하여 점차 수용, 동화, 변질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 또는 충돌에 따른 변화의 과정은 변화를 일으키는 순서와 예민도 또 선도성 등의 성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화의 해석을 진화론적인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전통의 답습

전통문화의 답습은 예전에 있는 의미나 형식을 시대의 변화

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 재현시키는 것으로, 문화를 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러한 방식은 진화라고 하기보다는 정지 또는 퇴보로 받아들여진다.

(2)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은 '전통의 답습'에서 '현대 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로서 두 가지의 요소가 드러난다. 즉, 이러한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조형 요소와 현대적인 조형 요소가 한 공간에 표현된다.

(3) 현대 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

현대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은 이문화 이입에 따른 문화의 변동에 맞추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옛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 시대 실정에 맞도록 변화 혹은 타문화와 융합시키는 방법이다.

3. 공간에서의 한국적 조형 특성

3.1. 공간 구성

(1) 상보적 이원성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상보적 이원성은 내부와 외부, 개방과 폐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보적 이원성의 특징은 서로 대조되는 성격 가운데 조화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간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 여백의 공간

한국 전통건축의 또 다른 특성은 여백의 공간의 존재, 그리고 그 공간에 자연스런 '있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허(虛)'에 의한 공간 표현이다. 여기서 '허'의 개념은 단순히 '무(無)'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채워진 느낌을 갖게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³⁾

3.2. 형태

(1) 탈기교성

자연스러운 선(線)적인 요소에 의한 구조적 특성은 실내 전체에서 세밀한 기교보다는 부드럽음과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⁴⁾ 하지만 탈기교성에 의해 정적이고 단조롭게 보여질 수 있는 공간을 선의 장단(長短)이나 굵기의 변화로 공간에 대한 동적인 표현과 울동미를 나타내고자 했다.

(2) 비례의 미

벽면의 비대칭적 구성이나 은은히 비치는 창호의 살은 벽면으로 구성된 전통 실내공간의 면적인 통일성에 변화를 줌으로

1) A. 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Vintage Books, 1952, p.79

2) 정무웅·고인룡, 주거 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통권72호, 1994, p.75

3) 이지연, 한국 전통 실내건축의 여허공간의 개념과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p.3

4)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p.205

써 온화하고 차분하며 정적인 가운데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자아낸다. 이러한 먼 분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례미가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정적인 분위기의 구조에 비대칭적 구성에 의한 동적인 느낌을 준다.

3.3. 색 채

(1) 색의 관념성과 위계성

한국문화 속에 반영된 색채의 특성은 음양오행적인 우주관에 근거하는 의미 또는 상징적 관념을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신분의 위계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민가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자연색을 그대로 드러내어, 인위적인 색조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조화를 나타낸다.

(2) 자연색과의 조화

한국문화 속의 색채는 자연에 대치한다는 개념보다는 동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색채의 사용도 전반적으로 약한 대비 현상을 나타내어, 자연의 색과 대비될 때에 강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동색조화(同色調和)를 이룬다.⁵⁾

4. 한식당의 조형표현 사례연구

4.1. 한식당의 실내공간의 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식당의 실내 내부 디자인의 문제점을 보면, 실내 내부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경영자들의 투자가 없으며, 필요성을 느끼는 경영자라 할지라도 문화적인 색채반영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직 미흡하여 전통문화의 답습 정도에 머물거나, 우리 문화와는 관계없이 이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천편일률적인 내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2 문화적 해석을 통한 한식당 실내 내부 공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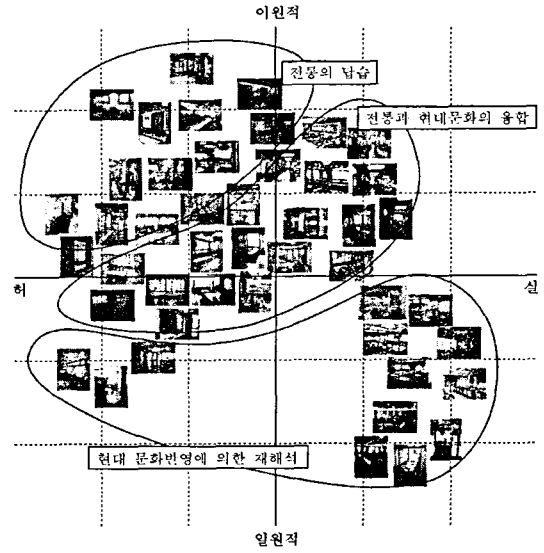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일원적-이원적 / 허-실)

한국적 공간의 특성 중에서 상보적 이원성이라 함은, 한 공간이 내부와 외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거나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서로 대조되는 성격의 조화와 가변성을 가지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상보 이원적 성격을 가지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이원적-일원적'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분석틀로는 여백 공간의 특성에 따라 '허'와 '실'이라는 이미지 형용사로 구분 지었다. 여기서 '허'라는 개념은 '無'의 개념이 아닌 비움의 개념으로 비움은 용도가 없는 빈 공

5)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미술세계, 통권 87호, 1992, p.39

간이 아닌 기능을 가진 공간에 여백의 미를 살린 경우를 말한다. 평면 공간(바닥)과 입면 공간(벽)에서 각각 비움의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의해 '허-실'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공간 구성

<표 1> 공간 구성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이원적 일원적	· 개방적, 폐쇄적 성격이 공존 · 좌식위주의 가변성을 가지는 공간	· 개방적, 폐쇄적 성격이 공존 · 좌식과 입식의 중간단계 · 대칭미투의 활용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의 조화	· 실(室) 구분에 의한 폐쇄적 성격 · 대부분 입식위주의 불변적 공간
허(虛) 실(實)	· 좌식중심의 공간으로 허의 성격이 강함 · 의자등의 가구가 거의 없으므로 인한 '허'의 느낌	· 진화 정도에 따라 허와 실의 느낌의 정도차가 나타남	· 평면에서 '실'의 공간 구성과 입면에서 '허'의 표현 시도 · 가구 사용으로 인한 '실'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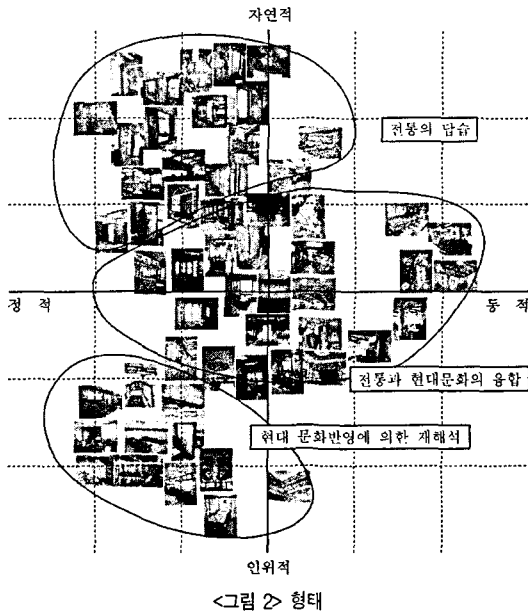
(2)형태 (자연적-인위적 / 동적-정적)

우선 한국적 공간에 있어서 형태의 조형 특성인 탈기교성을 구분 짓는 이미지 형용사로 '자연적'과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뽑았다.

그리고 비례의 미의 이미지 형용사로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구분지어 이미지들을 나누어 보았다. 즉, 형태의 배열이 대칭·비대칭인지 또는 수직·수평인지에 따라 정적, 동적이라는 형용사 이미지로 나누었다.

<표 2> 형태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자연적 인위적	· 자연적 곡선 형태를 그대로 표현 · 좌식 형태의 공간으로 형태 강조	· 진화 수준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 형태 공존 · 자연적 형태의 단순화 시도	· 인위적인 직선의 형태 · 입식 형태의 공간으로 수직적 공간 강조 · 직선위주의 인위적 형태를 자연소재로 완화
정적 동적	· 비례와 대칭의 공간분할에 의한 정적인 느낌	· 정적, 동적 느낌이 공존 · 인위적 기교형태에 한 동적인 느낌	· 강한 율동감보다는 동적인 느낌 속에 잔잔한 율동미를 느끼게 함 · 전통색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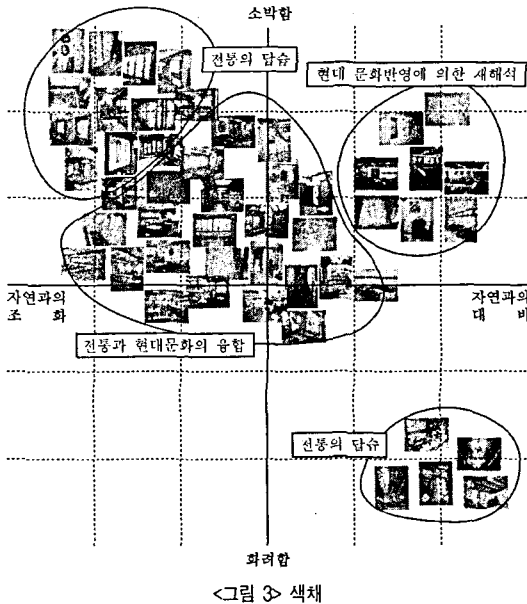


<그림 2> 형태

(3) 색채 (화려함-소박함 / 자연과의 조화-자연과의 대비)

색의 위계성에서 보인 색채의 특성을 화려함과 소박함이라는 것으로 구분지어 분석해 보았다.

또 다른 분석틀로는 자연색과의 조화와 자연색과의 대비로 구분지어 분석해 보았다.



<그림 3> 색채

5. 결론

오늘날처럼 문화 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있어 고유한 자국 문화의 유지 및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문화적'인 해석은 계속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표 3> 색채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소박함 화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재감을 살려 소박한 느낌 · 주된 재료인 나무나 흙의 색감이 주를 이룸 · 화려한 단청을 사용해 관념적 색채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임 · 소재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의 질감이 나타나는 색채 사용으로 소박한 느낌을 줌 · 소재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음 · 전통색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소재에 인공적인 색감을 표현 ·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한 대비
자연과의 조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채도의 색이 주를 이룸 · 화려한 색채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 답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채도가 점차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의 목재 색상과 대비되는 수입 목재 사용 · 인공 소재 사용 · 조명의 연출로 명암대비를 강조

연구 결과, 한국적인 것의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식당이 전통의 답습이나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현대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라는 것이 시대나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 발전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한식당 인테리어의 문화적 해석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이나 현대 문화 반영에 대한 재해석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2001
2.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3. 김원자,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 하자, 다지리, 2002
4.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미술세계, 1992
5. 힐리스 밀러, 이기우 역, 문화연구, 한국문화사, 1998
6. 石毛直道, 주거공간의 인류학, 가오시마 출판회, 1971
7. Amos Rapoport, 이규목 역, House Form and Culture, 열화당, 1985
8. 이선민, 조형적 사고체계에 의한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4호, 2002
9. 이주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4호, 2002
10. 박지연, 국제학술논문에서 나타난 '문화'에 관한 연구의 최근 경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8호, 2003
11. 정무용·고인룡, 주거 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통권72호, 1994
12. 이종하, 한국현대건축가 작품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1호, 2002
13. 이지연, 한국 전통 실내건축의 여허 공간의 개념과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14. 윤경미, 실내건축에서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0
15. A. 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Vintage Books, 1952
16. <http://www.numaru.com/arch-culture.htm>